

# 안도 다다오

## 감상문



2021.05.04

건축학과

202131004 김범일

영화는 안도 다다오의 몇 가지 대표적인 건축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우선 안도 다다오의 건축 사무소를 보여주는데 안도 다다오의 자리가 1층에 있고 그 옆으로 전화기들이 있다. 전화기들을 1층에 모아둔 이유는 자신이 들을 수 있고 바로 문제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직원들이 건축 설계도나 모형을 검사를 받으며 문제에 대해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얘기해준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물 중 교토의 우츠보 공원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다. 하지만 집 안의 공원은 그가 창조한 공간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또 실내에 테라스를 두어 집 안에서 우츠보 공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자연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빛의 변화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제공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전했다. 특히 안도 다다오는 나무가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나무의 쓰임을 강조했다. 안도 다다오의 말 중 ‘건축이란 터를 읽는 일이에요. 이 터를 본 순간 공원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생각했어요.’라고 말을 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터에 잘 설계한 건축물을 지어서 보기 좋으면 잘 지은 건축물이라 생각하던 생각을 바꾸게 해주었다. 다음으로는 빛의 교회라는 건축물을 보았는데 십자가 모양의 창이 있는 건축물이었다. 그 빛의 교회를 보면서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유는 십자가에서 빛이 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보고 빛 또한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빛의 교회 말고도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인 물의 교회와 물의 절 등이 있는데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들을 보며 공통으로 든 생각은 자연도 건축에 일부라는 것과 자연도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만의 느낌도 좋았다. 노출 콘크리트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꼭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색깔은 자신의 건축물에 녹여내는 것이 참 멋있게 느껴졌다.



오사카 스미요시에 있는 나가야라는 건물은 현관을 들어오면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맞은편에 주방 및 화장실이 있고 계단을 올라 2층에는 침실이 있다. 그 앞 통로를 지나 맞은편에 가면 그쪽에도 방이 하나 있다. 이 두 방 사이로는 천장이 없어 하늘을 볼 수 있어 나만의 하늘을 가진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이 스미요시 주택을 보면서 처음에는 굳이 천장이 없어야 했느냐는 생각을 하였는데 천장이 없으므로 새로운 볼 수 있는 시각이나 느낌 풍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천장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에서 이동할 때마다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하고 겨울에는 잠옷 차림으로 이동한다면 그것도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조금은 생각이 변했던 것 같다. 천장이 없으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안에서 간단하게 차나 커피를 즐기며 자신의 집에서만 담기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밤하늘을 보는 것도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을 자세히 보면 집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집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뚫린 개방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지붕이 없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또 교토의 공원에 있는 집도 그렇고 오사카에 스미요시 주택도 그렇고 둘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들을 보고 처음에 보고 든 생각은 집을 노출 콘크리트로라는 생각이었다. 집 외부는 그렇다 치고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이 주택들을 보며 노출 콘크리트가 전에도 말했듯이 자연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집이 더욱더 자연에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노출 콘크리트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안도 다다오가 청춘에 대해 얘기한 것이 있는데 “청춘은 말하자면 겁이 없는 시기예요. 어떻게든 된다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나는 왜 겁으로 둘러싸여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기회가 오면 잡으려 하지 않고 다음으로 떠미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는 기회가 오면 잡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나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더 낮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나가는 것 같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안도 다다오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먼저 노출 콘크리트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알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한 노출 콘크리트의 장점은 깔끔하고 자연과 잘 어울리며 멋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점은 난방과 여러 가지 이동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집과 자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 그냥 잘 설계한 집을 좋은 터에 지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자연의 어울리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집이 잘 지은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래에 내가 건축가가 되어 설계하게 된다면 안도 다다오나 여러 건축 거장들의 생각이나 건축 방식을 참고하고 공부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한국 건축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